

식약처, 전국 6개 권역에서 ‘식의약 정책이음 지역현장 열린마당’ 개최

- ‘정책이음’을 지역 현장 중심으로 확대한 심화형 소통 프로그램 운영
- 청년·소상공인·지역 업계와 함께 식의약 규제 개선 및 안전정책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청년·소상공인·지역 기업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지역 단위에서 생생하고 깊이 있게 청취하기 위해 전국 6개 지방 식약청과 함께 ‘식의약 정책이음 지역현장 열린마당’(이하 ‘지역현장 열린마당’)을 5월부터 순차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현장 열린마당’은 올해 본부에서 개최한 ‘식의약 정책이음’을 지역 현장 중심으로 확대한 심화형 소통 프로그램으로, 지역 산업 특성과 업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청년, 소상공인, 지역 기업인을 비롯해 식의약 관련 학계·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식약처 소관 분야별 현안을 논의한다.

주요 일정은 ▲식품·축산물 HACCP(부산청, 5.13.^{원료}) ▲가공식품 수출(대구청, 5.27.) ▲의료기기 제조(서울청, 6.10.) ▲비무균의약품 제조(광주청, 6.17.) ▲건강기능식품(경인청, 6.24.) ▲무균의약품 제조(대전청, 6.25.)이며 지역별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역현장 열린마당’에서 발굴된 정책 건의사항과 논의된 사항은 내부 검토를 거쳐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오유경 처장은 “지역 산업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년과 소상공인, 지역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식의약 정책 소통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비자위해예방국 위해예방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현선 (043-719-1711)
		담당자	사무관	유미숙 (043-719-2555)



□ 개요

- **(목적)** 청년·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추진을 위한 권역별 「식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및 현장 방문·간담회 개최
- **(주제)** 건강기능식품, 식품·축산물, 의약품, 의료기기 등
- **(참석자)**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관련 협회, 식약처 등 30명 내외
 - (외부)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협회 등 20명 내외
 - (내부) ①처장, 지방청장, 본부 사업국장 등(대구청 제외)
②지방청장, 담당 과장, 본부 사업 담당과장 등
- **(진행방식)** 라운드테이블 미팅* (60분 내외)
 - * 참석자 자유질의 및 정책 제안, 건의사항 등 청취 및 답변

□ 세부일정(안)

구 분	일정(월)	분야 (장소)	장소	비고
부산지방청	5.13	식품·축산물 HACCP 업체	부산	
대구지방청	5.27	가공식품 수출 업체	대구	
서울지방청	6.10	의료기기 제조업체	원주	
광주지방청	6.17	비무균제제 의약품제조업체	광주	
경인지방청	6.24	건강기능식품 업체	안양	
대전지방청	6.25	무균제 의약품제조업체	청주	